



아픔 넘어 평화의 도량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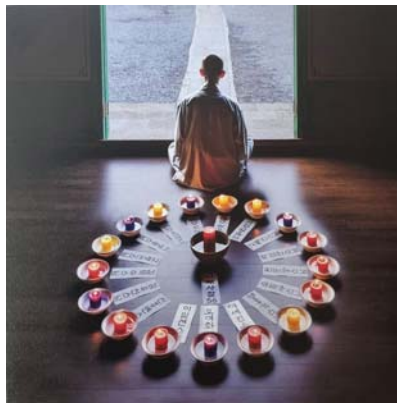
제주불교4·3추모사업회
불교 4·3피해 추모사진전
이달 11일부터 이룸갤러리

임관표·원정희 작가 초청
그날 현장 찾아 기억·치유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제주4·3 당시 불에 타거나 소개로 폐허가 되는 등 피해를 입은 사람은 모두 56곳. 이 중에는 훗날 재건한 사찰도 있지만 흔적 없이 사라진 곳도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승려는 17명.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된 이들도 있다.

제주불교4·3희생자추모사업회가 그 시기 제주 불교계가 겪은 피해와 희생의 역사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한 전시를 연다. 이달 11일부터 16일까지 한라일보 1층 이룸갤러리.

이번 '제주불교 4·3 피해 추모 사



◀관음사 대웅전에서 촬영한 '촛불로 밝힌 해원'.

제주불교4·3희생자추모사업회 제공

진전'은 '반야의 빛, 어둠을 밝히다'란 부제를 달았다. 원어섯 도량의 아픔을 새기고 법당을 지키다 스러졌던 닛들을 위로하는 전시다.

초청 작가는 불자인 임관표·원정희 사진가. 임관표 사진가는 제주민속사진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원정희 사진가는 제주영상동인 회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관음사, 불탐사 오층석탑, 산지포구, 중문중학교, 가마오름, 월영사, 은수사 터, 바굼지오름, 월정사, 원만사, 법화사, 흥룡사 웅장굴, 원당사, 금봉사 등 피해 사찰

과 희생자들의 사연이 깃든 곳을 직접 찾아 비통했던 기억의 궤적 위에 파스한 촛불을 밝히고 연등을 띄웠다. 그날의 상흔이 이제는 해원과 평화로 피어나길 소망하는 마음이 두 작가가 시각적 역사로 재구성한 풍경마다 스며 있다. "억을 하게 떠나간 4·3 영령들이여, 자비의 등불을 길잡이 삼아 모든 슬픔을 잊으시고 영원한 평화의 도량에서 편히 쉬소서."

제주4·3을 상징하는 장소도 사진에 담았다. 다랑쉬굴, 동광리 큰넓궤, 곤을동, 북촌리 너븐숭이, 선흘

동백동산, 가시리 '작별하지 않는 다리' 등이다. 이곳에서도 어둠을 밀어내는 빛을 밝혔다. 등불을 켜지 않은 곳에선 땅의 울림을 들었다.

제주불교4·3희생자추모사업회는 이 전시에 대해 "4·3의 아픔 속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제주 불교가 겪은 피해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자리"라며 "사진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고, 평화와 치유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개막 행사는 이달 12일 오후 5시.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문화가 쏙지

▷ 제주학연구센터 '제주 민속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모색' 포럼=마치다 타카시 창원대학교 교수의 '민속문화의 위기와 재생: 일본의 제도와 과제', 송기태 목포대학교 교수의 '전라도 지역 민속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의 명과 암, 그리고 현장의 생명력', 강소전 제주대학교 강사의 '제주도 민속문화의 인식과 진흥 정책의 과제'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이달 11일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개관 10주년 학술 심포지엄 '김창열 다시 읽기'=발표 주제는 '김창열 회화의 실존적 성찰을 통한 근원로의 회귀' (홍윤리, 광주역사민속박물관), '1960~70년대 프랑스 미술과 김창열' (박신영, 한국국제교류재단), '김창열의 매체 확장에 나타난 동시대성의 징후' (양은희, 김창열미술관), '김창열의 국내 수용과 한국 현대미술시장의 변화'

(주연화, 홍익대학교), '김창열 작업의 전시사: 조국가적 이동과 미술사적 위치의 제도적 구축' (박은영, 이화여자대학교)이다. 이달 12일 오후 2시부터 미술관 다목적 스튜디오.

▷ 김만덕박물관 개관 특별전 '의인 김만덕, 제주 해녀를 만나다'=제주 의인 김만덕과 제주 해녀의 삶이 김만덕박물관에서 만났다. 현직 해녀인 이유정 작가의 '해녀 돌봄 프로젝트' 작품과 이호해녀회 해녀 9명이 참여해 완성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제주시 건입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주최로 10월 5일까지.

▷ 구좌읍 '2026 구좌 마을 합창제'= '노래로 하나 되는 구좌, 함께 만드는 행복'을 슬로건으로 이달 12일 오후 4시부터 해녀박물관 야외 광장.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구좌 지역에서 활동하는 9개 합창단이 참여해 다양한 무대를 꾸민다. 간단한 먹거리 부스도 운영한다.

고재만의 제주어집합관 <516>

구성: (사) 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골멘: "야오달아, 이제부터 제주시 오라동 양전형 시인이 쓴 제주어 시집 '게무로사 못살리카'엔 혼 디서 '제주산 여즈'에 대한 시 이락을 하여보겨."

제주산 여즈

나는 제주산 여즈광 산다

창을 잘 불르곡 춤도 제법 춘다. 예시당추 좀너 조순이라 숨이 질고 바당소곱 힘에 풀광 가달이 유연한이다 눈물이 하다. 청원훈 무자년에 섬 뽕작 눈물바당이 꿔엿고 안적도 그 아픔이 남안 가심이 알리기 따문이다 초라니 비바리로 커도 어른이 뻔민 돈 후덕훈 어머이 땀다. 주작 산 할락산이 현숙훈 여즈산이난이다 뭇음에는 느랑 놀개기가 둔치고 있다. 앞바당 망망대해가 굵굵하곡, 바당 넘은 시상이 궁금한이다 날전한다. 북툼 한 섬, 북툼을 피하겨나 족게 맞아보젠 마직이 진화했기 따문이다

나는 제주산 여즈와 사난 막 좋다

<자료 : 양전형 제주어 시집 '게무로사 못살리카' 도서출판 다층>
<계속>

제주어 풀이

- *여즈광 산다: 여자와 산다
- *제법 춘다: 제법 춘다
- *좀너 조순이라: 해녀 자순이라
- *바당소곱 힘에: 바다속 유영에
- *풀: 광 가달이 유연한이다: 팔과 다리가 유연해서다
- *초라니 비바리: 말팔량이 소녀로
- *주작 산: 우뚝 선
- *현숙훈 여즈산이난이다: 현숙한 여자산이어서다
- *놀개기가 둔치고 있다: 날개가 돌아나고 있다
- *여즈와 사난 막 좋다: 여자와 사니 아주 좋다

해정 탄생 100주년 필묵 정신 기린다

정연희 오는 13일까지 기념전
초대작가 포함 40여 명 참여

올해는 제주 출신 서예가인 해정 박태준(1926~2001) 선생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 1981년 선생의 문하생들이 모여 결성한 서예 단체인 정연회가 이를 기념하는 서예전을 갖는다. 이달 8일부터 13일까지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

이번 전시엔 회원 12명과 초대작가 30명이 참여해 50여 점을 선보인다. 해정 선생이 남긴 유화, 서예

등 그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도 볼 수 있다. 또한 선생의 삶과 예술 세계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자료 등으로 '작가의 방'을 꾸몄다.

해정 선생은 일본 오사카미술학교 양화과를 졸업한 뒤 귀국해 오현중·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했다. 이후 서예에 뜻을 두고 국전 추천작가, 초대작가, 심사위원장, 운영위원장, 한국서예협회 부회장 등을 지낸 선생은 행서와 초서 분야에서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펼친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선희기자

승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부이씨 벽동공파 서송묵 문중회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향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 · 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마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28·구독 750-2314·서귀지사 732-5552